

 금융위원회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	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 금융감독원	보도	2021.1.29.(금) 조간	배포	2021.1.28.(목)	
기 관	책 임 자			담 당 자	
금융위원회	보험과장	김동환 (02-2100-2960)	김기훈 사무관 (2962)		
금융감독원	보험감독국장	강한구 (02-3145-7460)	이준교 팀 장 (7466)		
국토교통부	모빌리티정책과장	김동현 (044-201-4759)	홍예표 사무관 (3820)		
공정거래위원회	시장감시총괄과장	이동원 (044-200-4300)	박 찬 사무관 (4494)		
보험개발원	자동차보험부문장	유지호 (02- 368- 4003)	정태윤 팀 장 (4277)		

제 목 :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고, 보험료를 낮춘 개인보험 상품을 출시합니다.
(보험의 사적안전망(safety-net) 기능 강화 정책 제1탄)

◆ 금융위원회는 **2021년 업무계획 주요정책 방향** 중 하나로 **보험의 사적 안전망(safety-net) 기능 강화**를 발표한 바 있으며, 그 첫 번째 대책으로 **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**을 추진합니다.

- ① 「**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**」 구축·운영을 통해 **단체보험 중복 가입**으로 인한 **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**을 해소하겠습니다.(1.29일)
- ② 단체보험에 비해 **보험료 부담**이 적으며 **대리운전업체별 중복가입**이 불필요한 **온라인 전용 대리운전 개인보험**을 출시합니다.(1.29일)
- ③ 일부 **대리업체-대리기사간 불공정거래 관행**을 **개선**해 나가겠습니다.

1 추진 배경

□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형 또는 개인형 ‘대리운전보험’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.

* (단체보험) 특정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한 경우에만 보상 가능
(개인보험) 대리운전업체 제한 없이 대리운전중 사고시 보상 가능

○ 다만,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 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가입 하는 문제(보험료 중복지출)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※ (예시) 2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는 대리기사는 개인보험(예: 113만원)에 가입 하는 것이 유리하나, 해당 업체로부터 콜을 받기 위해 2개 단체보험에 중복해서 가입해야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증가(예: 108만원x2=216만원)

- 또한, 단체보험 보험료에 비해 개인보험의 보험료가 높아(위험보장 범위가 넓음) 개인보험에 대한 가입수요가 낮은 상황*입니다.

* ('20년말 기준) 대리운전보험 약 8만건 중 개인보험은 약 5,800건(7%)에 불과

➔ 黨·政은 지난해부터 정책위 중심 “필수노동자 보호 TF”를 통해 **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**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여 왔으며, 그 후속조치로서 금번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

※ (참고) 전국적으로 약 10만 명의 대리기사, 4천여 개의 대리운전업체가 영업중

2

추진 방안

1.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오픈(1월29일)

- (시스템 개요)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이 1월29일 오픈합니다.

※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: driver.kidi.or.kr (모바일 이용 가능)

- ① (대리기사) 개인보험을 가입한 대리기사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입력 및 정보활용 동의를 합니다.(무료)
- ② (대리업체) 대리콜을 받은 경우 시스템을 통해 대리기사의 보험가입 여부*를 확인한 이후 해당 대리기사에게 대리콜을 배정합니다.

* 이름 / 전화번호 / 현재시점 보험가입여부 / 보험계약기간 / 보험가입금액 등

<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이용 개요 >

- ① (대리기사) 개인정보 입력 및 활용 동의 ② (대리업체) 대리기사 보험가입 여부 확인



- (이용범위) 대리운전 시스템업체* 중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업체·대리기사
 기사 경우 1월29일부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등록할 수
 있으며, 2월5일부터 대리콜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* 대리운전업체는 주로 대리콜을 받는 역할만을 수행하며, 실제 대리기사에 대한
 대리콜 배정은 별도의 시스템 업체를 통해 수행 → 콜마너(CMNP), 로지(바나플),
 아이콘소프트, 카카오모빌리티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약 90%를 차지

- 로지(바나플), 아이콘소프트,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타 대리운전
 시스템업체*와도 2월~3월 중 전산연결**을 완료할 예정입니다.

* 인성데이터, 큐텍, 이루온엘비에스

** 전산연결을 원하는 대리운전 시스템업체는 보험개발원(02-368-4000)에 연락 가능

2. 보험료 부담이 적은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 출시(1월29일~)

- 사업비 절감(모집수수료 등)을 통해 현행 단체보험(평균 年110만원 내외)
 보다 보험료가 약 10% 저렴한 CM(온라인) 전용* 개인보험(평균 年96만원
 내외)을 출시하겠습니다.

* 기존 대리운전보험은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가입함에 따라 사업비 비중이 높음

- ①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소로 인한 보험료 부담 완화와 함께
 ② 하나의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리기사가 부담하는
 보험료가 절감*됩니다.

* (예) 단체보험 1개 가입시 年108만원, 2개 가입시 年216만원 → CM개인보험 年96만원

※ (참고) 대리운전보험에는 대인·대물·차량손해담보 외에 특약으로 대리기사가
 다친 경우 보상하는 "자기신체담보" 가입(1만원 내외) 가능

< 대리운전보험 단체보험·개인보험 보험료 비교 >

구 분		현행	개선 (CM 상품 도입)	인하율
A손보사 (1월29일 출시)	단체보험	108만원	좌 동	
	개인보험	113만원	96만원	15% ↓
B손보사 (3월중 출시)	단체보험	118만원	좌 동	
	개인보험	114만원	100만원	12% ↓

- 아울러 대리운전 개인보험에 보험료 할인·할증제도*를 도입하여 대리기사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이 더욱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* '21년중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'22년 대리운전 보험료가 할증, 무사고시에는 보험료 할인(할인·할증 등급은 총 10단계로 구성 예정)

3. 대리운전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

-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에게 자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* 하고,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리기사에게 쿨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* 대리운전업체가 (i)보험사로부터 단체보험 모집수수료를 받거나 (ii)실제 보험료 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수취해 단체보험을 강제할 유인이 있다는 지적

- 이는 「공정거래법」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,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리업체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.

※ (공정거래법 §23①)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(구입강제, 이익제공강요, 판매목표강제, 불이익제공, 경영간섭) 금지

→ 위반 시 (i)징벌적 과징금(최대 3년간 평균 매출액의 2%), 또는 (ii)형사처벌(최고 징역2년·벌금1억5천만원 이하) 가능

3

기대 효과

① 대리기사의 대리운전 보험료 부담 완화

-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문제의 해소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아울러 대리기사가 CM 전용 대리운전 보험상품 가입시 보험료를 최대 15% 가량 절감할 수 있습니다.

② 국민들의 대리운전보험 보장사각지대 해소

- 대리운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험에 가입된 대리기사에게만 콜을 배정하므로 무보험대리기사의 운행중 사고시 고객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.
- 또한, 보험료 할인·할증제도 도입으로 대리운전기사의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③ 질 높은 대리운전 서비스 환경 조성

- 대리운전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대리운전 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청 콜센터	 해외감염병 NOW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